

# 문화경관 연구를 위한 장소기억 개념 고찰

박재민\* · 성종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언어학적 전환, 70년대 마르크시즘과 구조주의, 80년대 구조화이론과 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전개된 사회이론은 문화경관 연구에서도 진지한 철학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Driver, 1994). 특히 코스그로브(Cosgrove)는 버거(Burger)의 개념을 차용하여 경관을 '바라보는 방식(way of seeing)'으로 재개념화 하였고, 이를 기초하여 경관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경관 연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장소기억에 대한 논의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구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장소기억 관련 기사를 살피고, 이에 기초하여 장소기억을 정의하였다.

## II. 장소기억 개념의 기작과 각 분야의 시선

경관연구에 있어 장소기억은 아직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만, 각 분야마다의 관점과 방식으로 장소기억(place memory)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 역사학, 인지과학, 지리학과 조경학에서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억과 장소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고대 그리스의 '장소기억법(method of loci)'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으며, 키케로는 장소에 축적된 기억의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최근 장소기억 개념은 알박스의 '집단기억'과 아스만 부부의 '문화적기억'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80년대 프랑스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를 중심으로 한 '기억의 장소'가 등장하며 장소와 기억에 대한 관심은 전면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기억의 가치 인식에 대한 재조명은 각 분야 마다의 방식으로 전개해 나아간다. 역사학에서는 기존 기록의 '역사'의 한계를 '기억'을 통해 극복한 것으로 기억의 물질성, 기억의 장소-지향적 특성을 파악하여 장소를 중심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비록 역사학에서 경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억 속에 내재된 장소의 경관 정보, 즉 문화적 이미지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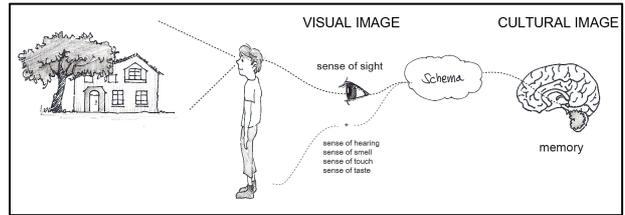


그림 1. 경관 정보의 처리 과정과 장소기억의 저장 (Park, 2012)

반면, 뇌 인지과학에서는 보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장소기억(place memory)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최근 뇌 인지과학 분야에서도 시각적 기억(visual memory)은 가장 활발히 연구가 전개되는 분야이다. 반면 대표적 장소 철학자 캐시(Casey)는 메를리 폰티(Maurice Merleau-Ponty)의 몸의 철학을 기초하여 현상학적 장소 연구를 발전시켰다. 몸 기억(body memory), 장소기억(place memory)과 기념물(commemoration)로 구분하였고, 기존 장소기억 개념에서 장소의 아우라(aura of place)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였다. 이는 키케로,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고대 철학자 또한 주장한 장소의 힘(power of place), 장소의 혼(genius loci)과 동일한 개념이다. 더불어 캐시는 기억의 일부는 경험과 선택과정을 통해 기념물과 기념일로 재현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념물은 기억을 재구조화하며 일부 왜곡시키기도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문지리학에서의 캐시의 연구와 관련되며, 장소기억은 기존 해석학적 경관 연구에서 더 나아가 계보학, 구조주의와 구조화이론 등에 기초하여 두텁고 다층적으로 지층화 된 의미 구조를 읽어내고자 하였다. 특히 한 장소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일어나는 다양한 기억의 경험, 기억의 정치를 장소기억이란 렌즈를 이용하여 읽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가시적 표상과 의미 이면에 담겨진 기억의 경험, 선택과 왜곡 과정 등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반면, 조경학에서의 장소기억은 주로 재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대표적으로 선유도 공원에서는 산업 시설과 재료라는 장소의 물리적 흔적을 직접적으로 기억하였고, 시설의 순환 메카니즘을 공간에 재현하였다. 그 외 현재는 남아있지 않은 조선시대 선유정의 기억을 '바라보기'라는 방식으로 재현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와 더불어 과거 산업노동자의 인터뷰를 통해 장소에 담겨진 기억을 찾았으며, 설계가의 감각을 통해 재현하였다. 최근에는 그동안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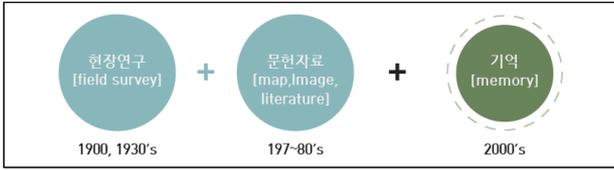


그림 2. 문화경관 연구 매체의 확장

원과 광장 등에 재현된 남겨진 기념성, 상징성과 장소기억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소기억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기억이란 연구 매체의 등장과 이에 따른 정보로서의 가치, 둘째, 장소기억 개념을 통한 경관의 구조적 해석이다.

### III. 장소기억 개념 고찰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장소기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장소기억이란 장소에 관한 기억을 말하며, 이는 장소에 남겨진 물리적 흔적의 기억, 주체의 기억 그리고 기억이 재현된 기념물과 기념일로 구분된다.

#### 1. 장소의 물리적 기억, 남겨진 물리적 흔적과 아우라 (aura)

삶의 공간인 장소에 남겨진 물리적 흔적은 오랜 시간 누적된 문화적 지층이다. 물리적 흔적은 과거 장소의 모습, 문화와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이다. 특히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흔적들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그 장소를 이해하고 경관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 물리적 흔적 중 일부의 특별한 것은 아우라, 장소의 혼(genius loci), 장소의 정신(sprite of place) 등으로 설명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앙코르와트 사원은 우리의 눈에 물리적 흔적 이상의 것을 전달해 주며, 익산 미륵사지터는 비록 물리적 흔적이 없을지라도 상상력으로 작용하며, 시대의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장소에 남겨진 물리적 흔적은 우리를 과거로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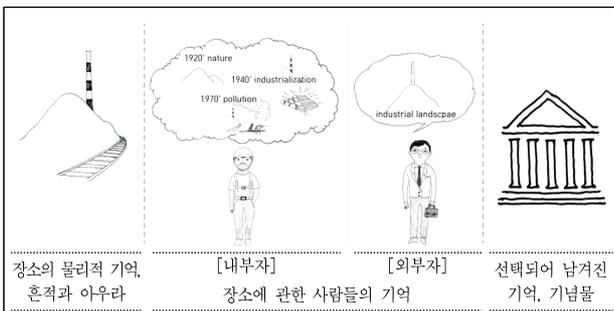


그림 3. 장소기억의 3가지 유형

## 2. 기억하는 주체, 주체의 기억

조경분야에서는 그 동안 주로 물리적 흔적을 읽고, 이를 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흔적보다는 인간이라는 주체의 기억을 주목하였다. 주체의 기억은 주로 역사학과 인지과학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경관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인 인간은 시지각을 중심으로 경관 정보를 수용하여 뇌(기억) 속에 저장한다. 경관 정보는 인지과정을 거치며 의미를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선택적으로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되는 장소기억은 각 주체의 위치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주체의 위치, 즉 대상 경관 내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위치에 따라 장소 경험이 달라지며 그 결과 인식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학자 버거(Berger, P)<sup>1)</sup>의 개념을 차용한 램프(Ralph, E)의 구분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1) 내부자의 장소기억

##### (1) 실존적 내부자(existential insider)

실존적 내부자는 본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으로, 대상 장소에 살아가며 그 경관을 생산하고 소비한 주체이고, 장소에서 살아가며 모든 시기를 경험한 주체이다. 실존적 내부자는 전 시기를 아울러 형성되는 상징적 이미지부터, 미시적 이미지 즉, 구체적 장소, 사물, 시기 별로 나타나는 문화적 이미지를 모두 간직하고 있다.

##### (2) 주변에 거주하는 내부자

실존적 내부자처럼 내부의 경관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살아가며 대상 장소와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간접경험과 구술을 통해서 비교적 많은 정보를 얻는다. 이들은 내부자만큼은 아니지만 시기별, 주요한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실존적 내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징적 이미지로 장소에 대한 경관을 설명한다.

##### (3)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내부자

비교적 최근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내부자로, 과거 경관이 생산되었을 때에 대한 이미지는 간직하고 있지 않다. 실존적 내부자와 주변에 거주하는 내부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이미지화한다. 더불어 간접적으로 얻은 경관이미지를 토대로 현재를 재이미지화 한다. 과거에 대한 경관 정보는 주변에 거주하는 내부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외부자의 관점으로 과거의 이미지를 서술한다. 실존적 내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향을 띤다.

## 2) 외부자의 장소기억

### (1) 일반적 외부자

장소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자의 경우, 주로 책, 영화, 방송 등의 미디어를 통해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미지화한다. 외부자는 직간접적인 장소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관 이미지보다는 상징화되고 기호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시간성은 배제되며 이 미디어 등을 통해 얻은 시점과 관점이 이미지화 된다. 외부자는 경관정보 제공자의 역할보다는 소비의 주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외부자는 제공해 주는 정보에 따라 왜곡하고 조작되기 쉽다.

### (2) 외부 전문가

초기에 전문가는 외부자와 유사하다. 하지만 관련 역사, 문화, 지역민과 교류 등의 학습을 통해 경관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는 장소의 방문, 관련 자료 수집, 인터뷰 수준에 따라 경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준이 달라진다.

이처럼 장소기억은 주체의 장소경험, 정보의 획득 방식에 따라 다르게 경관 정보가 저장된다. 이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경관 정보에서 거시적이고 상징화된 경관 정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저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관연구에 있어 연구 목적에 맞는 각 주체의 선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존적 내부자는 가장 많은 경관정보를 담고 있어 미시적이고 내부 의미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 유효할 수 있다.

## 3. 기억의 경합과 재현, 기념물과 기념일

경합 속에서 일부 기억은 기념물과 기념일로 재현된다. 이는 장소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남겨 과거를 기억하지만, 기억 주체

의 특수한 지향, 내용 선택, 삭제와 강조를 통해 왜곡하고 정치화된다. 따라서 많은 기념물과 기념일은 사라지지 않고 기억으로 남게 되었지만, 왜곡되거나 강조된 기억은 다시 우리의 기억을 조정한다.

## IV. 결론 및 토의

장소기억은 경관연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적 도구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조경학에서 주로 물리적 흔적의 기억과 재현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구조화되어 내재된 기억의 경합, 왜곡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설계가와 계획가가 무심하게 선택한 잘못된 기억은 왜곡된 재현으로 연결된다. 이는 역사와 인식을 왜곡시키며 장소의 상실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억에는 무수히 많은 경관 정보가 각인되어 있다. 과거에 관한 기억을 가독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복원할 수도, 의미를 이해할 수도, 그리고 구조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 1. 버거는 연구 주체가 문화에 동화되는 수준에 따라, 행동적-냉정한 관찰자, 감정이입적-행동참여, 원주민이 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 참고문헌

1. 박재민, 성종상(2012) 장항의 산업유산 분포 현황과 도시 형성과정. 국토지리학회지 46(2): 14-22.
2. Casey, E. S.(1987)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3. Cosgrove, D.(1985). Prospect, perspective and the evolution of the landscape ide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0(1): 45-62.
4. Driver, F.(1994).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1): 92-100.
5. Park, J. M and J. S. Sung(2012) Study on Janghang industrial site using place memory in South Korea. 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lanning and Human Settlements, 23th World Congress.